

문화광장



김 미 란
공연기획자·문화예술학 박사

지역에서 한 편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작품의 주제를 정하고 대본과 음악을 만드는 것부터 출연진 구성과 연습, 무대 제작, 홍보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완성된 작품이 한두 차례 공연에 그친 채 더 이상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문화예술 지원이 새로운 작품 제작에 집중된 반면, 완성된 작품을 보완해 재공연과 유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후속 지원에는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6년 제주에서는 예술공간 오이

한 번의 공연을 제주의 대표작으로 만드는 힘

와 사단법인 마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돼 공공 공연장과 협력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예술단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품을 제작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공 공연장은 단순히 무대를 제공하는 시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무대 기술과 홍보·관객 개발·작품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예술단체의 창작 경험과 예술적 역량에 공연장의 시설과 기술, 행정 경험이 더해질 때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한 작품이 제주를 대표하는 공연으로 성장하려면 창작 지원과 공공 공연장의 공동 제작을 시작으로 작품 보완, 재공연, 도외 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초연은

작품의 완성이 아니라 가능성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다. 이후 관객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부족한 부분을 다듬고, 도내 외 공연장과 축제로 무대를 넓혀 나가야 한다. 재공연 과정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제작 경험과 기술을 지역에 축적하며, 공공예산으로 제작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자산으로 성장시킨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평가 기준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공연 횟수와 관람객 수, 예산 집행률 같은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작품의 성장 가능성, 재공연 성과, 후속 유통 계획도 살펴야 한다. 새로운 작품을 발굴·제작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 우수작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 지원도 필요하다. 창작과 유통을 별개의 과정으로 분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지

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제주의 자연과 신화, 역사와 사람들의 삶은 다른 지역이 대신할 수 없는 문화자원이다. 하지만 제주를 소재로 사용했다고 곧바로 제주 대표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만의 이야기를 다른 지역 관객도 공감할 수 있는 예술적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이제 지역 문화예술정책은 “새로운 작품을 몇 편 만들었는가”를 넘어 “만들어진 작품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오래 남길 것인가”도 물어야 한다. 제주에서 탄생한 작품이 반복해서 공연되고 섬 밖의 관객과 만나며 다음 세대의 창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제주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예술단체와 공연장의 협력,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 관객의 관심과 응원

사설

결식아동 급식비 소멸 초래한 ‘황당 행정’

결식아동 급식비가 행정관리 부실로 소멸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결식아동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재원이 무위가 돼버렸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제주시 이도2동, 노형동,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아동급식비 지원 업무 소홀로 3500만원의 지원비가 사용되지 못했다.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 3514명에게 지급된 급식 지원비 3514만원이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됐다. 특히 이도2동에 거주하는 18세·16세 형제는 카드 사용 안내를 받지 못하자 지원 자격이 중지된 것으로 착각해 지원된 아동급식카드 318만원을 사용조차 하지 못했다.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가 담

동에서는 2024~2025년 2년간 1~3분기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4분기가 돼서야 가정방문 없이 문자·전화로만 독려했다. 이로 인해 아동 36명에게 지급된 급식 지원비 3514만원이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됐다. 특히 이도2동에 거주하는 18세·16세 형제는 카드 사용 안내를 받지 못하자 지원 자격이 중지된 것으로 착각해 지원된 아동급식카드 318만원을 사용조차 하지 못했다.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가 담

체육고 신설 희망고문 안된다

김광수 전교육감이 공약으로 추진했던 제주지역 체육고 설립이 사실상 고의숙 교육감 임기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체육고 신설 재검토 논란은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은희 행정부

산 상황 등을 언급한 만큼 사실상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학교가 사라져 가는 요즈음 학교를 신설하는 게 제주교육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체육고는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초·중학교 우수선수 연계 육성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을 동시 보장하고 제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다이빙이나 골프, 태권도, 유도, 복싱 등에 대한 체육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강점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남원을 지역에 체육고가 신설되면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제주 체육 생태계의 중심축으로써 역할도 기대된다. 제주교육당국은 전임 교육감의 공약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체육고 신설을 위한 용역 추진과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열린마당

뜨거운 여름, 더 뜨거웠던 소방 실습

고 은 빈
제주한라대학교 실습생

중요하다. 무더위 속 무거운 장비를 착용한 채 환자를 돌보는 구급대원들의 모습은 깊은 사명감을 안겨주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대원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배웠다. 폭염은 갑증 전수분 섭취·낮 시간 야외활동 자제 등 작은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다. 호든119센터에서 보낸 4주는 응급구조사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원들의 모습을 보며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굳혔다. 시민의 관심과 구급대원의 헌신이 함께할 때 더욱 안전한 여름을 만들 수 있다. 실습하는 기간 동안 기본적인 것들부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친절히 설명해 주신 호든119센터 모든 대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민들이 함께 만드는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20일 성과공유회 개최

“어선 유튜브비 추가 지원”

○…대학생과 청년, 영유아 가족, 장애인 등 도민 18명이 수월봉과 삼다수숲길을 직접 걸으며 탐방로의 불편을 짚고 개선안을 도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 ‘2026년 유니버설디자인 도민참여단’ 성과공유회를 열고 수월봉 지질트레일과 교래리 삼다수숲길에서 3개월간 현장을 살피며 도출한 개선점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현장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서 협의와 관련 사업에 반영할 방침. 고영훈 제주도 건축경관과장은 “도민이 직접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구제화했다”며 “이용자 입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하겠다”고 강조. 오소범기자

○…서귀포시가 최근 고유가 장기화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근해어선 어업용 유튜브비 4억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ℓ 기준 올해 2월 16만2940원에서 4월 27만7180원으로 70.1% 급등했고, 8월에도 24만9920원으로 2월 대비 53.4% 높은 수준을 유지. 부중해 시 해양수산과장은 “고유가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선 어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기존 확보한 연·근해어선 유튜브비 지원예산 9억원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 백금탁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윤봉 양영화**(제주중앙로타리클럽)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 8월 18일

딸 양 유 연
아 들 양 지 범
며느리 김 은 연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중앙로타리클럽 회원 일동

제주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릉2리 응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토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 주 토 박 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